

# “새해엔 우리가 ‘광주 야구’ 빛내겠습니다”



부산 엄광산에서 광주일고 야구 선수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또 다른 질주를 다짐하고 있다.

/부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일고 야구팀, 부산서 동계전훈 ML 진출·프로야구 MVP 등 선배들의 발자취 나침반 삼아 산에 오르고 뛰며 한겨울 구슬땀

을미년(乙未年)을 밝히는 2015년 첫 해와 함께 광주일고의 또 다른 질주가 시작됐다. 새해 첫날 광주일고 야구부 선수들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됐다. 환하게 불을 밝힌 채 2014년 마지막 밤을 야간 훈련으로 장식했던 선수들은 새해 아침 등이 뜨기도 전에 부지런히 옷을 챙겨입었다. 지난 21일 부산에 치러진 광주일고의 동계 전지 훈련 캠프. 이들은 김선섭 감독과 정정오·김주호 코치의 인솔 아래 훈련 장소 중 한 곳인 동의대로 향했다. 선수들의 발길은 익숙한 야구장을 넘어 계속됐다. 야구장 옆길로 난 엄광산(嚴光山) 등산로를 따라 30분 가량을 오른 끝에 비로소 발길이 멈췄다. 선수들은 서서히 밝아오는 동편 하늘을 향해 서서 바다를 붉은빛으로 물들인 을미년 첫해를 맞았다.

새해를 맞은 선수들은 막이 열린 새 시즌을 향한 다짐을 담아 합성을 지르기도 하고 나란히 어깨동무를 한 채 2015년에 대한 희망과 꿈을 얘기하기도 했다. 광주일고는 이들에게 자부심의 이름이다. 쟁쟁한 선배들이 이어온 광주일고의 명성과 전통은 든든한 힘이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메이저리거 3인방' 서재용·김병현·최희섭(이상 KIA)이 배출됐고 김정호(넥센)까지 프로야구 사상 첫 야수 포스팅으로 빅리그를 노리고 있다. 지난 시즌 프로야구에 새 역사를 쓴 MVP 서건창(넥센)도 광주일고라는 이름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선수다. 김기태·염경엽·선동열 감독 등 광주일고 출신의 프로야구 사령탑 세 명이 동시에 지휘봉을 잡기도 했다. 선배들의 명성을 이어 새싹들의 프로 진출도 계

속됐다. 투수 채지선이 신인드래프트에서 두산으로부터 가장 먼저 이름이 불렸다. 주장 송동욱도 NC의 새 식구가 됐고, 발 빠른 정다운도 kt 유니폼을 입는 등 세 명의 선수가 프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선배들이 수집한 전국대회 트로피는 야구부 숙소 한 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선배들의 활약이 눈부셨던 지난해 후배들은 시즌 마지막 대회였던 전국체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12월에는 '만행' 이호준(NC)의 지휘 아래 선·후배가 힘을 모아 야구대제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도 했다. 광주일고의 유명세는 야구 도시 부산에서도 통했다. 함께 산에 오른 시민들은 "야구 잘하는 학교 아니냐"며 선수들을 반겨주기도 했다. 영광과 자부심의 이름, 한편으로는 그 이름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다. 올 시즌 팀을 이끌어가게 된 주장 최지훈은 "야구대제전을 하면서 이호준 선배님의 모습에 감동을 했다. 결승전에서 팀을 챙기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잘해서 저런 선배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했다"며 "대제전을 다녀오면서 광주일고의 위상을 느끼기도 했지만 막중한 책임감도 들었다. 선배들이 이번 시즌 성적을 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 광주일고에 대한 기대감들도 크기 때문에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새해를 맞은 광주일고. 전통을 잇기 위해 한발 더 뛰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들의 독한 시즌 준비는 오는 4월까지 계속된다. /부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맹장수술 투혼 최은숙 '태극마크'

### 펜싱 여자 에페 선발전 6위... 광주서구청 동료 강영미 8위로 국가대표

광주 서구청 펜싱팀 최은숙(28)과 강영미(29)가 여자 에페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최은숙과 강영미는 지난 29일 강원 양구문화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펜싱국가대표선발전에서 8위권에 들어 태극마크를 달았다. 대통령배 우승으로 시드 배정을 받아 32강전부터 치른 최은숙은 4강까지 상대를 연속 제압, 국가대표를 확정지었다. 최은숙은 32강에서 이신희(장문여고)를 15-10으로, 16강에서 송진욱(전남도청)을 13-12로, 8강에서 국가대표 신아람(계룡시청)을 4-3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최은숙은 지난 2006년 국가대표로 첫 발탁이 된 이후 10년째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최은숙은 앞서 지난 23일 2014 전국 남녀에페종목별 오픈 펜싱선수권대회 은메달, 26~27일 제54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 2관왕을 차지했다. 그는 특히 종목별대회 사상 전인 18일 맹장수술

을 받고 실발도 제거하지 않은 채 출전, 정상 컨디션이 아닌데도 연달아 전국대회 은메달과 금메달, 태극마크를 따내는 투혼을 펼쳐 주위를 놀라게 했다. 강영미는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예선 1위로 32강에 진출했으나 국가대표 이해인(강원도청)에게 11-15로 져 패자부활전에 나섰다. 강영미는 패자부활전으로 32강을 다시 치렀고, 송진욱(전남도청)을 15-9로 제압하며 부활의 길을 걸었다. 16강에서 신현아(경기도체육회)를 15-13으로, 8강에서 박세라(부산시청)를 15-13으로 승리하며 8위를 확정, 국가대표가 됐다. 강영미는 2009~2011년 국가대표 이후 4년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남자 에페의 가동' 해남군청의 박경두(30)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세계랭킹 9위인 박경두는 국가대표선발전에서는 탈락했지만 대한펜싱협회 추천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서구청 펜싱팀 최은숙(왼쪽)과 강영미가 지난 29일 강원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여자 에페 8위권에 들어 태극마크를 달았다. <광주 서구청 제공>

## 광주야구협, 메디컬 체크 초·중·고·대 선수 500명

광주야구협회가 전국 최초로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메디컬 체크를 실시한다. 이번 메디컬 체크는 스포츠 손상 및 수술 후 재활 전문병원인 연희한방병원과 함께 진행하며 광주야구협회 소속 초·중·고·대 선수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비용은 광주협회가 일정부분 부담하고 연희한방병원이 재능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속선수들은 오는 5일부터 2월13일까지 Biodes S4를 비롯하여 첨단 측정 장비로 각 관절의 상태 등을 파악하게 된다. 나훈 광주야구협회장은 "선수들이 겨울철 동계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학교 및 선수들의 1년 성적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런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훈련보다는 메디컬 체크를 통해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효과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또 선수들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야구협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선수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부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희한방병원과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